AI 뉴스와 용어
월·수·금 오전 7시

METAL
First, AI Magaz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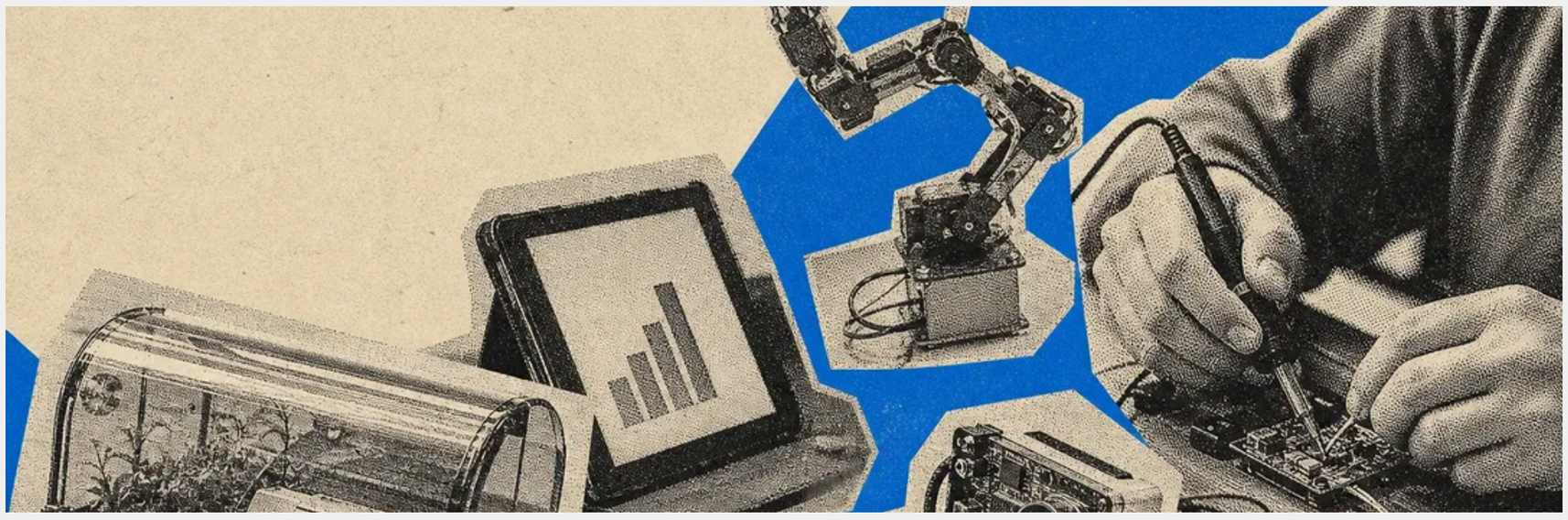
무료 · 언제든 수신거부
metallab.ai

제 47 호 2026년 10월 19일 월요일 오늘의 AI

AI

오픈AI, Codex 하드웨어 제작 사례 공개

오픈AI가 Codex로 만든 하드웨어 제작 사례 20건과 다섯 단계 학습 페이지를 한 사이트에 묶어 공개했다. 탈옥한 킨들 대시보드부터 농부가 만든 비닐하우스 환기 장치까지, 따라 만드는 법과 안전 규칙을 함께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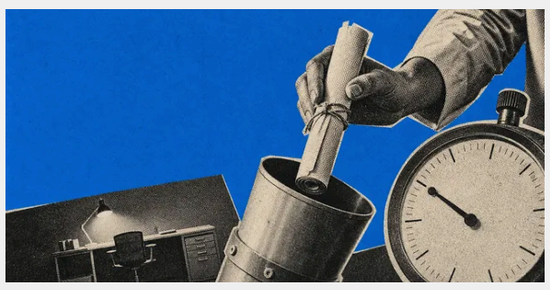


AI · 오픈AI, Codex 하드웨어 제작 사례 공개

오픈AI가 자사 코딩 에이전트 Codex로 만든 하드웨어 제작 사례 20건을 한곳에 모은 사이트 You can just build things를 공개했다. 오픈AI 개발자 공식 X 계정은 10월 18일 오전 7시 29분(한국 시간) "주말 프로젝트를 찾고 있나요?"라고 물으며 커뮤니티가 만들어 온 결과물과 그것을 직접 따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이 게시물의 조회수는 같은 날 오후 5시 기준 7만 회를 넘겼다. 사이트는 사례 목록, 다섯 단계로 된 학습 페이지, 사용자가 자기 작품을 올리는 제출 창구로 이뤄졌다.

사이트 첫 화면의 문구는 "Codex로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라. 탐색하고, 만들고, 배운 것을 나누라"이다. 사례 20건 가운데 17건은 커뮤니티 제작자가 올린 작품이고, 오픈AI가 직접 만든 것은 사진을 찍어 이미지 생성으로 바꾸는 라즈베리 파이 카메라 ImageGenCam, 사내 해커톤에서 나온 하드웨어 비서 Reflect 두 건이다. 나머지 한 건은 ESP32 보드를 오픈AI 리얼타임 API에 잇는 레퍼런스 저장소다.

가장 자세한 사례는 10년 된 킨들이다. X 핸들 kuberwastaken을 쓰는 제작자는 Codex로 킨들을 탈옥해 잠금 화면을 AI 사용량 대시보드로 바꿨다. 그는 "여러 기기와 구독에 걸쳐 AI를 얼마나 쓰는지 추적할 실물 대시보드가 필요했지만 전자잉크 화면을 또 사고 싶지는 않았다"고 적었다. 화면에는 Codex, 클로드 코드, 커서, 코파일럿, 제미나이 사용량이 API 환산 달러로 이달 누적치와 월말 예상치, 업체별 내역으로 나온다. 킨들은 6시간마다 스스로 깨어나 와이파이에 붙고 새 대시보드를 내려받은 뒤 다시 잠든다. 전자잉크가 마지막 화면을 전력 없이 유지하기 때문이다.



앤스로픽, 클로드 코드 첫 응답 대기 3배 단축

공학 경험이 없는 사용자 사례도 있다. X 핸들 tomiyasu16을 쓰는 제작자는 비닐하우스 옆면 차양을 말아 올리는 환기 장치를 만들었다. ESP32 보드 하나가 24볼트 모터 두 대를 돌리고, 메신저 LINE으로 열고 닫고 멈추며, 스위치봇 온도계 값에 따라 자동으로 움직인다. 그는 "나는 공학 경험이 전혀 없는 농부"라며 "온도가 시험 기준인 20도를 넘자 모터가 돌기 시작하고 LINE 알림이 왔을 때는 잊지 못할 순간이었다"고 썼다. 손으로 크랭크를 돌리러 하우스에 가던 일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나머지 사례도 장르가 넓다. 투쿠만에서 만든 서보 4개짜리 로봇 팔 El Tucu는 사람이든 AI 에이전트든 분 단위로 빌릴 수 있고, Codex가 x402 결제로 팔을 빌려 손을 흔들게 한다. 데프콘 배지는 KiCad 배선부터 JLCPCB 주문까지 에이전트가 맡았고, DJ 악기 62 BAR는 CAD부터 펌웨어, 나일론 케이스까지 Codex로 만들었다. 직접 출력해 조립하는 쓰레기 줍기 로버 MOSS, 64×96 OLED에 띄운 FPGA 슬롯머신, 리코 GR II·III·IV용 무선 셔터 겸 뷰파인더도 목록에 있다.



능을 더하고, 결과물을 공유하는 순서다. 메탈이 확인한 두 번째 단계의 첫 프롬프트에는 안전 규칙이 촘촘하게 들어 있다. 한 번에 질문은 두 개까지만 하고, 동작 감지 입력을 제안하기 전에 관성측정장치(IMU)가 있는지 확인하며, 데이터를 지우거나 펌웨어를 새로 굽기 전에는 영향을 설명하고 백업을 도운 뒤 확인을 기다리라고 지시한다. API 키나 비밀번호를 채팅에 붙여 넣으라고 요구하지 말라는 줄도 있고, 확인된 하드웨어 정보는 비밀값 없이 HARDWARE.md 파일에 저장하게 한다.

네 번째 단계는 기기에 붙일 기능 여덟 갈래를 늘어놓는다. 리얼타임 음성, 이미지 생성, 공개 베타인 디시전스(Decisions), 이미지 이해, 음성 인식, 음성 합성, 추론, 웹·파일 검색이다. 디시전스는 입력을 분류하거나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거나 점수를 매겨 기기의 반응을 일으키는 기능으로 소개됐다. 리얼타임 ESP32 사례 설명에 따르면 오픈AI 저장소의 기본 브랜치는 이제 칩 제조사 에스프레시프가 관리하는 데모를 가리키고, 오픈AI의 원래 구현은 esp32 브랜치에 남았다.

제출 규칙도 구체적이다. 작품을 올리려면 전체 모습이 보이는 사진과 X, 링크드인, 인스타그램 공개 게시물 링크가 필요하고, 제목은 30자, 짧은 설명은 160자 이내다. 제출한 뒤에는 제작자가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어 고치려면 새로 제출해야 한다. 오픈AI가 제공한 제출용 프롬프트도 "확인된 사실만 쓰고 결과나 기능, 링크를 지어내지 말라"고 Codex에 지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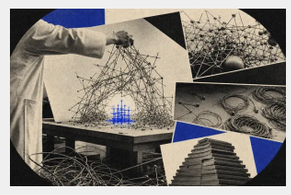
메탈은 오픈AI가 윈도용 Codex에 MXC 샌드박스를 붙인 소식을 보도한 바 있다. 그때까지 Codex 소식이 기업 도입 사례와 코드 작업에 머물렀다면 이번 사이트는 납땜과 배선의 영역으로 무대를 옮겼다. 콘텐츠 마케팅의 눈으로 보면 이 사이트의 핵심은 제품 설명이 아니라 따라 할 수 있는 레시피다. 농부의 비닐하우스와 고양이용 TV가 같은 목

오늘 지면

1 AI 오픈AI, Codex 하드웨어 제작 사례 공개
2 AI 오픈AI, Codex로 죽은 코드 80만 줄 삭제
3 비즈니스 오픈AI 직원, 회의실 녹음장치 설치 혐의 체포
4 AI 오픈AI, BSP Codex 활용 사례 공개
5 AI 오픈AI, 이타우 생성 AI 사례 공개
6 AI 앤스로픽, 클로드 코드 첫 응답 대기 3배 단축



앤스로픽, 지분 5% 공익기금 출연 발표



앤스로픽, 클로드의 양자 회로 설계 공개

이 지면은 2026년 10월 19일 월요일 아침 구독자 메일함으로 나간 레터를 신문 판형으로 다시 조판한 것입니다. 기사 전문은 metallab.ai 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AI



오픈AI, BSP Codex 활용 사례 공개

오픈AI가 미국 크레딧 전문 운용사 베네핏 스트리트 파트너스(BSP)의 Codex 활용 사례를 10월 16일 공개했다. 이 회사 포트폴리오 매니저 아난트 쿠마르(Anant Kumar)는 Codex로 대출 평가액 비교 도구와 신용계약서 분석 도구를 직접 만들었다. 투자위원회가 던진 후속 질문에 답하는 데 예전에는 며칠에서 몇 주가 걸렸지만, 이제 애널리스트가 한 차례 의견을 하루 안에 반영하고 회의 도중에 답하는 경우도 많다고 쿠마르는 밝혔다.

▶ 2면에 계속

AI

오픈AI, Codex로 죽은 코드 80만 줄 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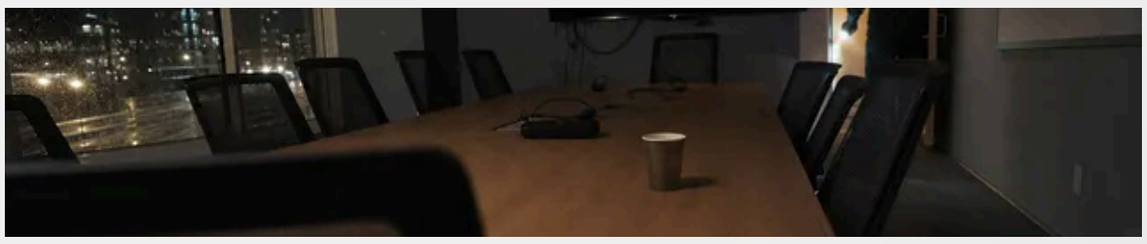


오픈AI가 사내 개발팀이 Codex로 죽은 코드 80만 줄 이상을 삭제한 과정을 공개했다. 오픈AI 코어 실험(Core Experimentation)팀의 로드리고 로임(Rodrigo Roim)은 오픈AI 개발자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GPT-6 Astra를 쓴 엔지니어 5명이 2주 동안 다른 업무와 병행하며 1,400건이 넘는 풀 리퀘스트를 병합했다고 밝혔다. 코어 실험팀은 화면 개편부터 모델 서빙 효율 개선까지 회사 전반의 실험을 받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관리한다.

로임은 10월 16일(UTC) X에 이 글을 소개하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가 바뀌고 있다. 몇 달 전만 해도 Codex에 죽은 코드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 줘야 했다"고 썼다. 이어 "이제는 슬랙에서 후보를 찾고, 프로덕션 텔레메트리와 대조하고, 정리용 PR 초안까지 쓴다"고 덧붙였다. 오픈AI 개발자 계정(@OpenAIDevs)도 같은 날 이 글을 다시 소개했고, 메탈이 확인한 시점에 그 게시물의 조회는 17만 회를 넘었다.

비즈니스

오픈AI 직원, 회의실 녹음장치 설치 혐의 체포



오픈AI에서 일하던 엔지니어가 회사 임원 회의실에 몰래 녹음장치를 설치한 혐의로 체포됐다. 미국 법무부 캘리포니아 북부지검은 10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압둘라흐만 알포잔(35)을 전자 장치로 구두 대화를 감청하거나 감청하려 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알포잔은 10월 9일 체포돼 13일 연방법원에 처음 출석했고 현재 연방 구금 상태다. 구속 여부를 가리는 심리는 10월 19일 앨릭스 체 치안판사 앞에서 열린다.

공소장에 따르면 알포잔은 2025년 7월부터 오픈AI 엔지니어로 일했다. 공소장은 오픈AI를 회사 1로만 적었다. 오픈AI 직원들은 2026년 9월 30일 무렵 샌프란시스코 사옥 한 건물의 임원 회의실에서 텔레비전 뒷면 USB 포트에 꽂힌 녹음장치를 발견했다. 장치는 화장지에 싸여 숨겨져 있었고 저장된 내용은 암호화돼 있었다. 회사는 장치가 9월 28일 무렵 설치된 것으로 판단했다.

◀ 1면에서 계속

AI

오픈AI, Codex로 죽은 코드 80만 줄 삭제



1 오픈AI 코어 실험팀 로드리고 로임은 엔지니어 5명이 GPT-6 Astra와 Codex로 2주 동안 PR 1,400건 이상을 병합해 코드 80만 줄 이상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2 모델은 슬랙·과거 PR·프로덕션 프로파일링을 대조해 근거를 붙였고, 한 서비스의 컨테이너 이미지는 3.31GB에서 1.72GB로 48% 줄었다.

3 비교 시험에서 GPT-6.1 Sol Ultra는 Astra Ultra 발견 건수의 92%를 API 비용 14%로 찾았고, CI 완료 시간 중앙값은 약 10분에서 4.5분으로 줄었다.

변화의 출발점은 지시의 크기다. 로임에 따르면 GPT-5.6 Sol 시절에는 조사할 영역과 검증 기준을 사람이 정해 줘야 모델이 정적 분석 코드를 쓰고 죽은 코드를 지웠다. GPT-6 Astra에는 오타가 섞인 짧은 요청 한 줄을 그대로 줬다. 슬랙이든 실험 플랫폼 스탯시그(Statsig)든 필요한 곳을 확인해 정말 안 쓰이는 코드를 찾아 정리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모델은 과거 PR을 훑고, 슬랙 스레드에서 맥락을 모으고, 사내 프로젝트 관리 도구를 살폈다. 프로덕션 성능 프로파일링 표를 읽어 지울 줄이 실제로 한 번도 실행되지 않았는지 확인했고, 삭제마다 근거를 붙여 리뷰를 빠르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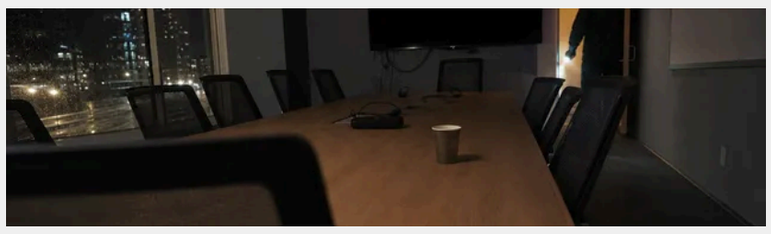
정리의 효과는 숫자로 남았다. 한 서비스의 컨테이너 이미지는 3.31GB에서 1.72GB로 48% 줄었고, 다른 정리 작업에서는 테스트 묶음의 시각 스냅숏 변형 약 400개가 사라졌다. 코드 리뷰는 영향을 받는 프로젝트를 아는 여러 팀으로 나눠 맡겼다.

더 까다로운 일은 오래된 실험의 정리였다. 실험 코드는 아직 프로덕션에서 돌거나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자격 판정에 묶여 있어 정적 분석만으로는 걸러 내기 어렵다. 팀은 Astra와 함께 저장소 전체를 훑는 지시문을 다듬었고, 그 결과 실험과 기능 플래그 수백 개를 지웠다. 한 사례에서 모델은 내부 개발자가 다른 모든 신기능 플래그를 덮어쓸 수 있게 만든 파이썬 한 줄이 CPU 부하를 크게 키운다는 것을 찾아냈다. 다만 그 플래그가 관리 콘솔에 영구(Permanent)로 표시돼 있어 직접 지우지 않고 사람의 검토로 넘겼다. 검토 끝에 플래그를 없앴고, 주요 서비스에서 CPU를 약 0.42% 아낀 것으로 추산됐다.

◀ 1면에서 계속

비즈니스

오픈AI 직원, 회의실 녹음장치 설치 혐의 체포



1 미 법무부 캘리포니아 북부지검은 10월 13일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오픈AI 엔지니어 압둘라흐만 알포잔(35)을 구두 대화 감청 시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2 공소장에 따르면 9월 30일 무렵 임원 회의실 텔레비전 USB 포트에서 화장지에 싸인 녹음장치가 발견됐고, 10월 5일 그의 가방에서도 같은 종류의 장치가 나왔다.

3 오픈AI는 모델 가중치나 소스 코드, 고객 데이터가 유출된 정황은 없다며 해당 직원을 해고했고, 유죄가 확정되면 그는 최대 징역 5년과 벌금 25만 달러에 처해질 수 있다.

수사기관이 내세운 근거는 네 갈래다. 첫째는 사내 폐쇄회로 영상이다. 알포잔은 회의실에 들어가거나 그곳 회의에 참석할 권한이 없었는데도 장치가 발견되기 전 여러 날 회의실 주변에 나타났다. 둘째는 검색 기록이다. 그는 9월 28일 이전 업무용 생산성 도구로 사옥 주소와 회의실 수용 인원·일정, 그리고 리더십·임원 회의와 외부 파트너 회의가 열리는 장소를 여러 차례 조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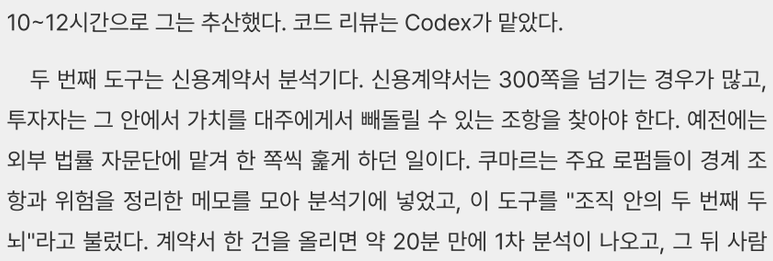
셋째 근거는 챗봇 기록이다. 알포잔의 배우자와 연결된 챗봇 계정은 그의 계정과 여러 식별 정보를 공유했는데, 9월 24일부터 30일 사이 장치를 만들고 설치하고 녹음하고 숨기고 원격으로 접속하는 방법을 물었다. 연속 녹음기 제작, 와이파이 연결 설정, 실시간 청취 개선, SD 카드 암호화 같은 질문이 들어 있었다. 같은 계정은 9월 27~28일 문제의 장치에 쓰인 맞춤 헤더와 고유 MAC 주소까지 물었다. 넷째는 10월 5일의 행적이다. 알포잔은 그날 회의실에 들어가 텔레비전 뒤를 살피는 모습이 찍혔고, 같은 날 다른 방에 두고 간 그의 가방에서 지갑·신분증과 함께 같은 종류의 녹음장치가 하나 더 나왔다.

회의실이 노린 표적이었다는 점도 공소장에 담겼다. 그 회의실에서는 독점 연구와 제품 계획, 사업 개발 기회, 기술 진척과 정부 협력, 상업 관계 같은 비공개 정보가 자주 논의됐다. 크레이그 미사키언 캘리포니아 북부지검장은 "베이 에어리어와 실리콘밸리는 내일의 기술 개발을 이끌고 있다"며 "우리에게 이것은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말했다.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알포잔은 회사의 초지능 기술에 관한 민감한 대화를 몰래 포착하려고 고용주의 임원 회의실에 은밀한 녹음장치를 숨긴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다.

◀ 1면에서 계속

AI

오픈AI, BSP Codex 활용 사례 공개



1 오픈AI가 10월 16일 크레딧 전문 운용사 베네핏 스트리트 파트너스(BSP)의 Codex 활용 사례를 공개했다. 포트폴리오 매니저 아난트 쿠마르가 업무 도구를 직접 만들었다.

2 SEC 공시로 같은 대출의 회사별 평가액을 비교하는 BDC 추적기는 첫 버전이 하루, 총 개발 시간이 10~12시간이었고 코드 리뷰는 Codex가 맡았다.

3 300쪽이 넘는 신용계약서를 약 20분 만에 1차 분석하는 도구는 GPT-6 Astra로 다시 짜 사내 포털에서 가동 중이며, 그 뒤 사람이 한 시간 이상 검토한다.

첫 도구는 BDC 평가액 추적기다. 기업에 대출하는 투자회사인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를 낸다. 추적기는 이 공개 공시를 모아 여러 회사가 같은 대출을 얼마로 평가하는지 비교하고, BSP 팀은 자기 평가액이 다른 보유자와 어떻게 다른지 본다. 메탈이 확인한 원문 영상에서 쿠마르는 "많은 회사에서 누군가 에드가에 접속해 문서를 내려받고 한 줄씩 읽고 있을 것"이라며 이 작업을 자동으로 긁어 오는 도구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첫 버전은 하루 만에 나왔고, 이후 몇 주 동안 기능과 화면을 다듬은 시간을 합친 총 개발 시간은 10~12시간으로 그는 추산했다. 코드 리뷰는 Codex가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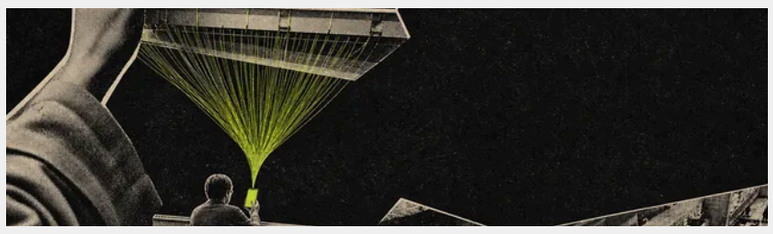
두 번째 도구는 신용계약서 분석기다. 신용계약서는 300쪽을 넘기는 경우가 많고, 투자자는 그 안에서 가치를 대주에게서 빼돌릴 수 있는 조항을 찾아야 한다. 예전에는 외부 법률 자문단에 맡겨 한 쪽씩 훑게 하던 일이다. 쿠마르는 주요 로펌들이 경계 조항과 위험을 정리한 메모를 모아 분석기에 넣었고, 이 도구를 "조직 안의 두 번째 두뇌"라고 불렀다. 계약서 한 건을 올리면 약 20분 만에 1차 분석이 나오고, 그 뒤 사람이 한 시간 이상 검토한다. BSP는 이 도구를 GPT-6 Astra로 다시 짰고 지금은 회사가 운영하는 포털에서 가동 중이다.

법률 실무의 눈으로 보면 이 분석기의 설계가 눈에 띈다. 대주 보호 조항을 걸러 내는 기준을 모델이 스스로 정하지 않고 로펌 메모라는 검증된 문서에서 가져왔고, 기계의 1차 결과 뒤에 사람의 검토 시간을 따로 박아 두었다. 쿠마르는 "AI는 데이터를 모으고 받아들이고 분석을 종합하는 데 매우 유용하지만, 최종 투자 결정은 사람이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조항 해석이 대주의 몫을 가르는 크레딧 투자에서 판단의 책임을 사람에게 남겨 둔 선택이다.

AI

오픈AI, 이타우 생성 AI 사례 공개

브라질 최대 은행 이타우가 대화형 인터페이스 ia.i 로 1단계 고객 약 30만명을 받았고, 2026년 말까지 전체 고객으로 넓히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사내 거버넌스 플랫폼 IARA 위의 법무 솔루션은 문서 9000만건 저장소에서 월 200만건이 넘는 작업을 수행한다.



1 오픈AI가 10월 16일 브라질 이타우의 생성 AI 도입 사례를 공개했다. 대화형 인터페이스 ia.i 가 1단계에서 고객 약 30만명에게 닿았고, 은행은 2026년 말까지 전체 고객 적용을 목표로 삼았다.

2 이타우는 거버넌스·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 IARA 를 지어 토큰당 비용 통제와 응답 정확도, 책임 있는 AI 정책 적용을 한곳에서 다룬다. 오픈AI는 이 환경에 올라온 모델 공급사 가운데 하나다.

3 IARA 위의 법무 솔루션은 문서 9000만건이 넘는 저장소에서 월 200만건이 넘는 작업을 수행하며, 부서 업무 단계에 따라 효율이 20%에서 80%까지 개선됐다.

오픈AI가 브라질 최대 은행 이타우의 생성 AI 도입 사례를 10월 16일 공개했다. 이타우는 대화형 인터페이스 ia.i 와 사내 거버넌스 플랫폼 IARA 를 축으로 고객과 직원 양쪽에 AI 를 붙였고, 1단계에서 고객 약 30만명이 ia.i 를 쓰고 있다. 은행은 2026년 말까지 전체 고객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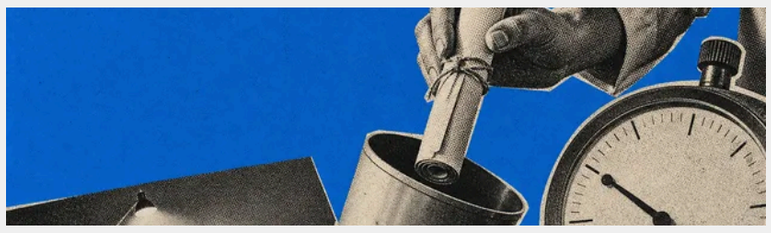
이타우가 내세운 기준은 모델 성능이 아니라 체감의 단순함이다. 카를로스 에두아르도 마제이(Carlos Eduardo Mazzei) 이타우 최고기술책임자는 "상당 부분은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쓸모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고객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전하고 기술이 거의 눈에 띄지 않게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일상에 실제로 있어야 하고, 전달은 간결해야 하며, 기술은 경험의 주인공이 아니라 수단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다.

수요 쪽 근거도 함께 제시됐다. 이타우가 그루포 콘수모테카와 함께 진행한 조사에서 브라질인의 80%가 재무 생활을 더 잘 정리하고 싶어 하며 의사결정에 더 효과적인 도움을 찾는다고 답했고, 65%는 지속적으로 안내해 주는 금융 코파일럿 역할의 기술을 원한다고 답했다.

AI

앤스로픽, 클로드 코드 첫 응답 대기 3배 단축

앤스로픽이 클로드 코드의 첫 토큰 전 대기 시간을 8월 대비 최대 3배 줄였다고 공개했다. 매 턴 보내는 대화를 gzip으로 압축하고 클라우드 세션을 입력 시작과 함께 띄운 결과다.



1 앤스로픽 개발자 계정은 10월 16일 모델 시간을 뺀 첫 토큰 전 대기(p90)가 클로드 코드 로컬 세션에서 4.07초에서 1.33초로 3배 줄었다고 밝혔다.

2 클라우드 세션은 16.99초에서 6.00초로 2.8배, 채팅과 코워크는 3.36초에서 2.17초로, 클로드 API의 첫 토큰 시간(p50)은 1.53초에서 1.01초로 각각 1.5배 빨라졌다.

3 10월 14일 배포된 2.1.300 버전은 텔레메트리를 꺼도 큰 요청을 gzip으로 압축하고, 클라우드 세션은 입력을 시작하는 순간 켜지도록 바뀌었다.

앤스로픽이 클로드 코드의 첫 응답 대기 시간을 3배 단축했다고 밝혔다. 앤스로픽 개발자 계정 클로드데브스(@ClaudeDevs)는 10월 16일(미국 시간) X에 올린 글과 도표에서, 모델이 계산하는 시간을 뺀 첫 토큰 전 대기 시간이 8월부터 10월 사이 클로드 코드 로컬 세션에서 4.07초에서 1.33초로 줄었다고 공개했다. 같은 기간 클로드 채팅과 코워크의 대기는 3.36초에서 2.17초로 1.5배 짧아졌다.

계정은 "클로드 전반의 성능을 계속 개선하고 있고, 응답이 더 빨리 시작된다는 것을 이미 눈치챘을 수도 있다"고 썼다. 메탈이 확인한 시점에 이 글은 공개 하루가 안 돼 조회 149만 회, 좋아요 1만 3천여 회를 기록했다.

도표의 수치는 네 갈래다. 클로드 코드 로컬 세션은 4.07초에서 1.33초로 3배, 클라우드 세션은 16.99초에서 6.00초로 2.8배, 채팅과 코워크는 3.36초에서 2.17초로 1.5배 빨라졌다. 이 세 항목은 모델 시간을 뺀 대기를 하위 90% 지점(p90)으로 잰 값이다. 클로드 API만은 모델 시간을 포함한 첫 토큰까지의 시간을 중앙값(p50)으로 쟀고, 1.53초에서 1.01초로 1.5배 줄었다.

비즈니스

앤스로픽, 지분 5% 공익기금 출연 발표

앤스로픽이 주주 승인을 전제로 지분 5%를 완전 자회사 LLC인 공익기금에 출연한다. 기업가치가 기준선보다 50% 오를 때마다 2%를 더하는 구조로, 기존 약정을 합치면 지분 약 20%가 공익에 묶인다.



1 앤스로픽은 10월 18일 지분 5%를 새 공익기금에 출연하고, 기업가치가 기준선보다 50% 오를 때마다 이사회 재량으로 2%를 더한다고 발표했다.

2 기금은 501(c)(3)가 아닌 완전 자회사 LLC로 세우며, 보유 지분을 로비나 정치 기부에 쓰지 않고 대규모 기부나 특정 집단 직접 분배에 쓸 수 있다.

3 공동창업자의 지분 80% 기부 서약과 직원 매칭 기부를 합치면 앤스로픽 지분 약 20%가 공익에 배정되며, 기준선과 거버넌스는 몇 달 안에 공개된다.

앤스로픽이 10월 18일 회사 지분 5%를 새로 세우는 앤스로픽 공익기금(Anthropic Public Benefit Fund)에 출연하겠다고 발표했다. 출연은 주주 승인을 전제로 하며, 회사 가치가 미리 정한 기준선보다 50% 오를 때마다 이사회 재량으로 지분 2%를 더 넣는 구조다. 회사 측은 공동창업자와 직원의 기존 기부 약정을 합치면 앤스로픽 지분의 약 20%가 공익에 쓰이도록 묶인다고 밝혔다.

규모는 숫자로 드러난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지분 5%는 약 480억 달러어치다. 앤스로픽은 X 공식 계정에도 같은 내용을 올렸고, 이 게시물은 공개 약 두 시간 만에 조회 36만9000회와 좋아요 4700여 개를 기록했다.

이번 발표의 무게는 기금의 법적 형식에 있다. 앤스로픽은 기금을 미국 세법상 공익비영리단체 형식인 501(c)(3)나 다른 형식이 아니라 회사가 100% 소유하는 유한책임회사(LLC)로 세운다. 회사는 이 형식을 고른 이유로 서로 다른 기부 방식 사이를 조정할 여지를 들었다. 또 LLC가 보유한 앤스로픽 지분은 미국에서든 해외에서든 로비나 정치 기부에 쓰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I

힉스필드,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와 그랜트 공개

힉스필드가 작품과 제작 맥락을 함께 공개하는 커뮤니티를 열고, 1분 이상 영상 프로젝트에 생성 크레딧을 최대 20만 개 주는 그랜트를 더했다. 등급은 좋아요가 아니라 검증과 다시 만들기 같은 행동으로 쌓이고 마일스톤마다 크레딧이 붙는다.



1 힉스필드는 10월 17일 오픈 프로젝트와 숏, 블로그 글을 공개 프로필에 올리는 힉스필드 커뮤니티와 랭킹 탭, 크리에이터 탭, 힉스필드 그랜트를 발표했다.

2 오픈 프로젝트는 결과물과 함께 생성 횟수, 모델과 도구, 브리프, 작업 폴더를 보여 주고 프롬프트 공개 여부는 크리에이터가 고른다.

3 등급은 검증 프로젝트 30점 등 행동으로 쌓이고 100·500·1000점에서 5000·7만5000·20만 크레딧을 주며, 그랜트는 1분 이상 영상에 최대 20만 크레딧을 준다.

힉스필드가 자사 모델로 만든 작품을 공개하고 평가받는 공간 힉스필드 커뮤니티(Higgsfield Community)를 10월 17일 공식 블로그에 발표했다. 이번 출시로 커뮤니티 페이지와 프로필의 랭킹 탭, 크리에이터 탭, 그리고 공개 프로젝트 한 건에 생성 크레딧을 최대 20만 개까지 주는 힉스필드 그랜트(Higgsfield Grants)가 더해졌다. 크리에이터는 오픈 프로젝트(Open Project)와 숏(Shot), 블로그 글을 올릴 수 있고, 각자의 공개 프로필에는 커뮤니티 등급 점수가 붙는다. 프로필과 프로젝트, 숏은 계정이 없는 방문자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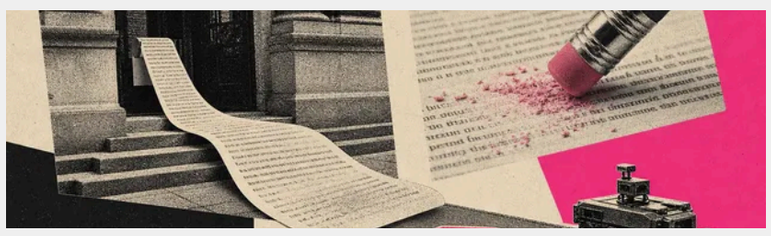
설계의 중심은 결과물과 함께 제작 맥락을 공개하는 데 있다. 힉스필드는 공지에서 "대부분의 피드는 완성된 클립만 보여 주고 다른 것은 보여 주지 않는다"며 "모델과 시도 횟수, 프로젝트의 바탕이 된 브리프는 대개 크리에이터에게 남는다"고 밝혔다. 그래서 오픈 프로젝트 페이지에는 결과물 옆에 프로젝트에 들어간 생성 횟수, 사용한 모델과 도구, 메모가 달린 브리프, 작업 폴더가 함께 걸린다. 쓴 크레딧은 크리에이터가 옵션을 켰을 때만 보인다. 숏은 이미지나 영상 한 장에 프롬프트와 모델, 설정, 그리고 같은 결과를 다시 만들어 보는 버튼이 붙는 형식이다.

프롬프트 공개 여부는 크리에이터가 정한다. 게시 창은 네 단계로 돈다. 세부 정보 단계에서 제목과 설명, higgsfield.ai/@사용자명/projects/프로젝트명 형태의 공개 링크, 공동 작가, 태그를 적고, 에셋 단계에서 완성작 한 편을 맨 위에 두는 피처, 회차를 순서대로 보여 주는 시리즈, 넘겨 보는 캐러셀 가운데 하나를 고른다. 표지는 선택이고 없으면 첫 에셋이 카드가 된다. 마지막 접근 단계에서 프롬프트 공개와 프롬프트 숨김 중 하나를 고르는데, 힉스필드는 "두 옵션 모두 오픈 프로젝트를 만든다"고 설명했다. 프롬프트를 숨겨도 결과물과 브리프, 폴더는 그대로 둘러볼 수 있다. 생성물은 공개 전까지 에셋 보관함에 비공개로 남고, 공개를 취소해도 생성물은 지워지지 않는다.

AI

메타, 커머스 약관의 웹 수집 조항 삭제

메타가 비즈니스 계정과 연결된 웹사이트를 수집해 AI 학습에 쓸 수 있다고 읽히던 커머스 약관 문구를 언론사와 법률 전문가의 반발 끝에 지웠다. 메타는 크롤링 약관이 광고와 비즈니스 제품에만 적용되고 robots.txt 선호를 넘어서지 않는다고 밝혔다.



1 메타는 10월 30일 적용 예정인 커머스 약관에서 연결된 도메인의 콘텐츠를 메타 제품 학습에 쓸 수 있다는 웹 수집 조항을 10월 17일 삭제했다.

2 제임스 그리멀먼 코넬대 교수 등 법률 전문가들은 이 조항이 뉴스 사이트 콘텐츠로 AI를 학습시키는 허락이자 robots.txt를 넘어서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3 대니얼 로버츠 메타 대변인은 크롤링 약관이 광고와 비즈니스 제품에만 적용되며 콘텐츠 소유자는 robots.txt로 선호를 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메타가 10월 30일부터 적용할 새 커머스 약관에서 비즈니스 계정과 연결된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수집해 AI 학습에 쓸 수 있다고 읽히던 웹 수집 조항을 삭제했다. 언론사와 법률 전문가들이 이 조항이 뉴스 사이트를 공짜로 긁어 AI를 학습시키는 권리로 쓰일 수 있다고 반발하자, 메타는 10월 17일 약관을 다시 고치고 해당 문구를 통째로 뺐다. 보도에 따르면 대니얼 로버츠 메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가 통합한 크롤링 약관은 광고와 비즈니스 제품에만 적용되며 약관 자체에 그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조항은 메타가 10월 초 블로그와 메타 비즈니스 스위트로 알린 약관 개정안에 들어 있었다. 개정안은 이용자가 메타에 웹 스크레이퍼, 봇, 크롤러 같은 자동화 소프트웨어로 자사 제품·서비스와 연결된 도메인과 웹페이지에 접근하고, 색인하고, 수집하고, 주기적으로 갱신본을 가져가도록 허락한다고 적었다. 이어 메타가 그 도메인의 모든 콘텐츠를 메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발하고 개선하고 연구하고 학습시키는 데 쓸 수 있다고 명시했다. 메타는 약관의 다른 대목에서 메타 AI를 그 제품 가운데 하나로 정의한다.

적용 범위는 넓었다. 새 약관은 페이지와 그룹을 관리하거나 광고를 집행하거나 마케팅 메시지를 보내거나 비즈니스 대시보드를 쓰는 계정 전반에 걸린다. 비즈니스 계정은 페이스북 페이지, 메신저, 인스타그램 프로필, 왓츠앱 채널을 한곳에서 관리하는 도구이고, 보도에 따르면 사실상 모든 뉴스 조직이 메타 비즈니스 계정을 하나 이상 갖고 있다. 10월 30일 이전에 이 약관만 따로 거부할 방법은 없었다. 개정 공지는 "업데이트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비즈니스나 상업 목적의 제품 접근과 사용을 모두 중단해 달라"고 적었다. 메타가 이용자에게 보여 주는 현행 커머스 약관 페이지에도 이 업데이트가 2026년 10월 30일부터 적용된다는 안내가 걸려 있다.

비즈니스

미국 30개 주, 알고리즘 가격 규제 법안 검토

미국에서 최소 30개 주 의회가 올해 알고리즘 가격과 개인화 가격을 다루는 규제 법안을 검토했다. FTC는 개인 정보를 쓴 맞춤 가격을 알리지 않으면 소비자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 미국 최소 30개 주 의회가 올해 알고리즘·개인화 가격 법안을 검토했고, FTC는 개인 정보로 맞춤 가격을 매기며 알리지 않으면 위법일 수 있다는 집행 방침을 제안했다.

2 웹 데이터 기업 데코도 추적에서 2025년 미국 가격 변동의 약 절반은 인하였고, 업계는 전자 가격표를 흔히 주 단위로 바꾼다고 설명했다.

3 메릴랜드·뉴저지·코네티컷이 개인 정보 기반 가격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고, FTC는 아마존의 프로젝트 네시가 10억 달러 넘는 초과 이익을 냈다며 소송 중이다.

미국 소비자의 분노가 가격 수준에서 가격을 정하는 방식으로 옮겨 가고 있다. 식료품 매대의 종이 가격표는 전자 가격표로 빠르게 바뀌고, 기업은 AI로 고객 반응을 예측해 값을 정한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전미주의회협의회(NCSL) 집계로 올해 최소 30개 주 의회가 알고리즘 가격과 개인화 가격을 다루는 규제 법안을 검토했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개인 정보를 써서 사람마다 다른 가격을 매기면서 이를 알리지 않으면 소비자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집행 방침을 제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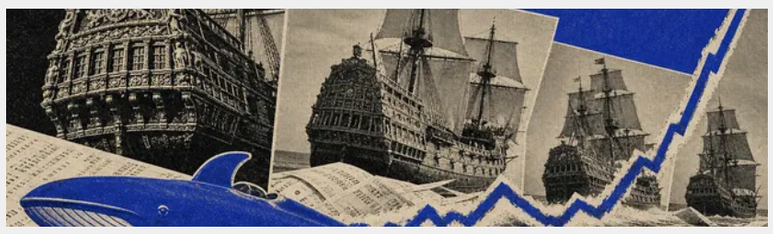
갈등의 축은 힘의 균형이다. 컨설팅사 커니에서 소비자 행동 싱크탱크를 이끄는 케이티 토머스는 "알고리즘과 봇, AI를 쓰는 데서 진짜 힘을 누가 갖느냐를 두고 지금 기업과 쇼핑객 사이에 큰 긴장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토머스는 월마트가 미국 전 매장에 깔 전자 가격표가 쇼핑객의 얼굴이나 휴대전화를 스캔해 개인별 가격을 매긴다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기업은 오해라고 반박한다. 존 퍼너 월마트 최고경영자는 지난달 블로그 글에서 전자 가격표가 직원의 시간을 아끼고 가격을 최신으로 유지해 준다며, 날씨나 시간대, 개별 쇼핑객에 따라 값을 올리는 데 쓰지 않는다고 밝혔다. 퍼너는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상품에 가격을 매긴다"고 썼다. 메탈은 퍼너가 개인화 가격을 거부하는 서한을 냈다고 보도한 바 있다.

AI

딥시크, V4.1-Flash-1017 공개

V4.1-Flash를 다시 사후 학습한 체크포인트로 DeepSWE v1.1에서 77.0을 기록했다. 자체 검색 엔진을 쓰는 검색·페치 API도 모든 개발자에게 열었다.



1 딥시크가 10월 17일 V4.1-Flash의 새 체크포인트 DeepSeek-V4.1-Flash-1017을 웹·앱·API에 공개하고 허깅페이스와 모델스코프에 올렸다.

2 딥시크 공식 표에서 1017은 직전 버전을 11개 항목 모두에서 앞섰고 DeepSWE v1.1 77.0으로 클로드 Opus 5(74.0)보다 높았다. 도구 없는 HLE는 42.6으로 클로드 Opus 5(56.3)에 못 미쳤다.

3 하루 수억 건을 처리하는 자체 검색 엔진 기반 검색·페치 API를 모든 개발자에게 열었고, 코딩 에이전트의 서버 측 호출 과금은 10월 31일 시작한다.

딥시크가 경량 모델 V4.1-Flash의 새 체크포인트 DeepSeek-V4.1-Flash-1017을 10월 17일 공개했다. 딥시크는 X와 API 문서 공지에서 "이전 버전보다 벤치마크 성능이 높고, 작업을 더 빨리 끝내며, 출력은 더 짧다"며 "성능과 비용 양쪽의 파레토 개선"이라고 밝혔다. 새 모델은 딥시크 웹사이트와 앱, API에 바로 올라갔고, 딥시크는 같은 날 자체 검색 엔진을 쓰는 검색·페치 API를 모든 개발자에게 열었다.

이번 판은 9월 초 나온 V4.1-Flash의 사후 학습을 다시 한 체크포인트다. 메탈은 딥시크가 1.6조 파라미터 V4-Pro 대신 552B 규모 V4.1-Flash로 주력을 옮긴 소식을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V4.1-Flash 구조는 백본 파라미터 552B와 엔그램(Engram) 파라미터 196B로 이뤄지고, 토큰당 프리필에서 8B, 디코딩에서 16B만 활성화한다. 컨텍스트는 100만 토큰, 출력은 최대 38만4000토큰이다. API에서는 deepseek-flash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딥시크가 내세운 변화는 학습 방식이다. 회사는 1017이 "자기 피드백을 쓰는 강화학습"으로 게임 제작부터 3D 모델링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하는 프로젝트 개발 능력을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공지에 실린 시연은 자금성 3D 모델링, 웹 레이싱 게임, 고도(Godot) 엔진으로 다시 만든 포털 2, 선사 시대부터 현대까지의 변화를 담은 3D 장면 「밸리 오브 에이지스」 네 가지다.

기후

유엔개발계획, 에너지·엘니뇨·금리 삼중 충격 경고

유엔개발계획은 에너지 가격 급등과 역대 최강 엘니뇨, 고금리가 겹친 삼중 충격이 개발도상국을 짓누른다고 경고했다. 가격 억제가 무너지면 올해 빈곤 인구가 약 1억3000만 명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다.



1 유엔개발계획은 10월 정책 브리프에서 에너지 가격 급등, 기록적 엘니뇨, 수십 년 만의 고금리가 겹친 삼중 충격이 개도국을 압박한다고 경고했다.

2 130개국의 휘발유·경유 소매가는 충돌 이후 평균 26%와 38% 올랐고, 화석연료 보조금은 올해 1조 달러를 넘을 수 있으며 개도국 중간값 정부는 세입의 9.5%를 이자로 쓴다.

3 가격 상승을 가계에 그대로 넘기면 6.85달러 빈곤선 아래 인구가 1억3200만 명 늘고, 전체 보전에는 개도국 GDP의 1.1%, 빈곤층만 보전하면 0.3%가 든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개발도상국을 덮친 에너지 가격·엘니뇨·고금리의 삼중 충격을 경고하는 정책 연구 보고서를 10월 공개했다. 「회복할 시간이 없다」는 제목의 22쪽 보고서는 중동 군사 충돌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다룬 세 번째 갱신판으로, 충돌 7개월 만에 위기가 단일 충격에서 겹치는 충격으로 바뀌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이 에너지 가격 상승을 막지 않고 가계에 그대로 넘길 경우 올해 하루 6.85달러 빈곤선 아래로 떨어지는 사람이 약 1억3000만 명 늘어난다.

첫 번째 충격은 에너지다. 2월 말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시작되며 치솟은 유가는 7월 휴전이 깨지자 다시 뛰었다. 브렌트유는 9월 한 달 평균 배럴당 102달러로 7월보다 22% 올랐고, 이 수준은 2022년 에너지·식량 가격 충격 이후 처음이다. 130개국의 휘발유와 경유 소매가격은 충돌 이후 평균 26%와 38% 올랐다. 기름값을 그대로 묶어 둔 나라는 열 곳 중 한 곳뿐이었고, 6월에서 9월 사이 3분의 2 가까운 나라에서 상승 폭이 더 벌어졌다.

두 번째 충격은 기후다. 적도 태평양 중부의 해수면 온도는 7월 말 평년보다 2.2~2.6도 높았다가 9월 중순 3.0도를 넘었고, 9월 30일 일일 잠정치는 3.2도였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올가을과 겨울 매우 강한 엘니뇨가 나타날 확률을 90% 넘게, 1950년 이후 모든 엘니뇨보다 강할 확률을 75%로 봤다. 세계기상기구는 이번 엘니뇨가 적어도 2027년 2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100%에 가깝게 잡았다. 세계식량계획은 이 엘니뇨가 2027년 말까지 식량 불안국 45곳에서 급성 식량 불안 인구를 약 2억2500만 명에서 2억7400만 명으로 22% 늘릴 수 있다고 추산했다.

기후

미국 에너지부, 버지니아 송전 확충에 DPA 자금

기존 선로에 고효율 전선과 동적 송전용량 산정을 적용해 290메가와트를 더한다. 국방물자생산법 자금 최대 5000만 달러가 걸렸다.



1 미국 에너지부는 10월 16일 버지니아·웨스트버지니아 송전 용량 확충 사업에 국방물자생산법 자금 최대 5000만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2 기존 송전 회랑에 고효율 전선 재가설과 동적 송전용량 산정을 적용해 애팔래치안 파워 버지니아 계통에 약 290메가와트를 더하며, 기존 증설보다 1~4년 빠르다.

3 국가안보 관련 에너지 사업에 배정된 연방 자금은 10억 달러이며, 보도에 따르면 2026 회계연도 국방물자생산법 잔액은 약 3억2300만 달러에 그친다.

미국 에너지부가 버지니아와 웨스트버지니아의 송전 용량을 늘리는 사업에 국방물자생산법(DPA)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10월 16일 밝혔다. 버지니아 에너지국이 이끄는 버지니아·웨스트버지니아 대규모 부하 증가 대응 전력망 강화 기술 사업이 최대 5000만 달러를 받는다. 미국 에너지부는 새 송전선을 놓는 대신 이미 깔려 있는 선로의 송전 능력을 끌어올리는 쪽에 연방 자금을 쓰며, 데이터센터가 끌어올린 부하를 기존 인프라로 흡수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업은 기존 송전 회랑을 따라 고효율 전선 재가설과 동적 송전용량 산정 기술을 적용한다. 에너지부는 이를 통해 애팔래치안 파워의 버지니아 계통에 약 290메가와트의 송전 용량이 더해지고, 기존 방식의 송전 설비 증설보다 1년에서 4년 빠르게 전력